

제출서류 12종서 3종으로...처리기간 42일로 단축 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 간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차례 방문 모든 절차 완료

인증면적 50%까지 늘리기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가 인증 참여가 순쉬워지고,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이하 농관원)은 15일 GAP의 인증절차가 3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되고 구비서류도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여 농민들이 보다 쉽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GAP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관련 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1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증기간도 최대 126일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방문해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정부3.0을 통해 통합 처리하도록 단순화하고 인증서류도 3종으로 대폭 줄여 처리기간이 최대 42일로 단축된다.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돼 별도의 GAP 시설설치 및 지정등록(또는 다른 GAP 시설 경우)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경감됐다.

인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심사시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재심사 할 수 있도록 수준별 차등 관리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관리인증신청서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 단체의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GAP인증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이며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으로 식용 농산물이면 GAP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시기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 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3분의 2가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GAP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인삼 등 약용 29품목 3년)이다.

농관원은 웰빙안전개방화 시대에 대응하

? GAP(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등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 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의 증가와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FTA)에 대응해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선도한다.



농관원은 GAP의 인증절차를 3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하고 구비서류도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이는 등 인증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중이다. 농산물 유통업자를 대상으로한 GAP 이해 현장교육. <농관원 전남지원 제공>

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GAP 농산물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시 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안전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깨끗한농업환경실천본부를 구성해 GAP 실천 분위기를 확산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모두 GAP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도 2025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수박 꼭지의 유무가 유통과는 상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수박 꼭지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 꼭지 없는 수박을 시중에 시범 유통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때아닌 '꼭지없는 수박' 논란

농식품부 "신선도와 무관" 유통 추진... 소비자들 "어떻게 고르나"

"수십년동안 꼭지에 물기가 남아있었지, 말랐는지 살펴보고 신선한 수박을 골라왔는데 갑자기 꼭지가 사라지면 도대체 뭘 보고 고르나요?"

정부가 '꼭지를 거의 남기지 않은 수박'의 유통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15일 백화점 식품매장을 찾은 주부 정 모씨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전날 농식품부는 지급처럼 꼭지를 영문 'T'자 모양으로 다듬지 않고 불과 1cm 정도만 남긴 수박을 이달부터 하나로마트 등 농협을 통해 시범 유통시키겠다고 밝혔다.

긴 꼭지와 경도(딱딱한 정도)·당도(단맛 정도)·과육(과일 속살)·색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만큼 수확 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꼭지 없는 수박의 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수박 꼭지로 신선도·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 씨와 같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내용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농축산물 구매 요령'에서 수박 선별법과 관련, "외형상 크기가 큰 것이 상품이고, 껍질이 얇고 탄력이 있으며 꼭지부위에 달린 줄기 부분이 싱싱한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홈페이지 '농산물표준규격 정보' 코너에서 수박의 등급 규격 기준을 소개하며 "꼭지가 시들지않고 신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황스럽기는 신선 과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꼭지 없는 수박' 도입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유통업체 담당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통업체 과일 담당자들은 "우리는 산지를 직접 찾아 당도 등을 보고 물건을 고르기 때문에 꼭지 유무가 질과 상관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랫동안 꼭지를 보고 신선도를 판단해온 소비자 입장에서 수박 선택의 기준이 없어지는 셈인데, 유통업체가 이 같은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무시하고 꼭지 없는 수박의 물량을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꼭지 없는 수박의 질을 보증해야만 대량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주부 부처인 농식품부도 수박의 등급 규격 기준을 고치고 수박 판매대에 당도·입고 일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원에협동조합 복구 지야동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광주시 북구 지야동에 들어선다.

광주원에협동조합은 농·축산물의 유통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16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부지면적 7876㎡에 연면적 1991㎡·지상 2층 규모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0억원(국비 9억원·시비 9억원·자부담 12억원)이 투입됐다. 저온저장고(754㎡), 선별장(615㎡), 출하대기실, 사무실, 교육장을 갖추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취급한다.

산지유통센터는 기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농산물이 산지에서 수집상과 농산물 경매를 거쳐 다시 중간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넘어가는 중간 유통과정을 모두 없앴다.

기존 유통 관행이 축소되면 평균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원에협은 내다봤다.

광주원에협은 업체류·쌈채류·특수야채와 무·당근·감자 등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품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일반 음식점소에도 식료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척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월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월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평당 15만원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득: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해남읍서 대동사 가는길목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주택4동+캠핑카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면적: 3071평방미터 ▶면적: 3848평방미터 (계획관리)

▶매가: 9천만원 ▶매가: 5천5백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NAVER **간비플라워**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30% 할인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할인

축화환3단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